도서관, 국가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까?

'국가발전과 도서관의 역할' 주제로 이틀간 대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최은주)는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국민행복과 미래를 이끄는 도서관' 기조강연으로 시작

9월 2일 첫째 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인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은 '국민행복과 미래를 이끄는 도서관'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도서관은 기능과 규모, 역사로 볼 때 매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도서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인쇄기술의 발달로 빚어진 변화보다도 더 혁명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보나 우리나라 도서관 사정은 다른 측면에서 사회가 드러내는 선진적 모습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디지털시대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도서관 망의 체계화와 분업화, 희귀자료 관리와 종이책, 기타 인쇄물의 선별적 구입 확충, 소통의 장소로서의 도서관 기능 다변화, 사회적 소외집단을 위한 서비스 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사서 인력 확충 및 교육·훈련 강화, 도서관 지원예산의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상완 초대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은 '한국인의 지식문화적 삶! 도서관이 견인해야 한다'는 주제 발표에서 "모든 도서관은 국민의 지식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의 인문정신문화 융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이 지식정보 중심의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자리매김할 때 그 시너지 내지 나비효과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생태계에는 여전히 경제우선주의, 행정중심주의, 물신주의적 사고가 전방위로 대입되고 있어 정책, 법제, 운영관리, 그리고 사회문화 측면에서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초청자인 영국예술위원회의 도서관부문 책임자 브라이언 애슐리는 '도서관 : 지역사회의 심장, 국가발전의 마이크로칩'이란 발표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했다. 브라이언 애슐리는 "영

국의 도서관은 열정과 혁신, 영구적인 직업적 헌신이라는 오랜 전통을 발판 삼아 심각한 문제들과 맞서면서 여전히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다. 도서관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라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공간과 소장자료와 전문 지식이라는 3가지 자원을 통해 본질적인 이익을 안겨준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3천 개가 넘는 도서관 건물과 수많은 이동도서관,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는 훌륭한 전통,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돼 인재와 국가 발전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심장이자 국가의 마이크로칩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장실 의원 좌장으로 한 토크콘서트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간사인 김장실 의원(전 문화부 제1차관)을 좌장으로, 문화융성위원회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서 서울대 교육부총장, 전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유종필 관악구청장, 배영대 중앙일보 문화부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인 윤희윤 대구대 사회과학대학장 등 5명이 참여해 문화융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유종필 구청장은 정책집행자로서 진행했던 도서관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취임 초였던 2010년 5개에 불과했던 관악구 지역도서관은 지하철역 무인도서 대출기를 포함해 43개로 늘었고, 건물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 시설을 활용해 청사 1층에 '용꿈꾸는 작은도서관', 관악산매표소를 리모델링해 만든 '관악산 시도서관', 컨테이너를 재활용해 만든 '낙성대공원도서관',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 등을 만든 장본인이다. 유 구청장은 "도서관은 인문학, 평생학습 등과 더불어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식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 생활 속에 녹아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월 3일 관종별 토론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려

대토론회 이틀째인 9월 3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종별 정책토론회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오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공공도서관 분과, 오후에는 국제회의장에서 작은도서관 분과,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전문도서관 분과에 대한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공공도서관 분과 토론회는 김영석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 지역사회를 변화·발전시키는 공공도서관'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봉규 미래행복인재연구원 대표, 윤명희 파주 교하도서관장, 장덕현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작은도서관 분과 토론회에서는 이상복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전망', 전문도서관 분과 토론회에서는 남영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전문도서관의 창조적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문화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거점이자 '국정 2기 문화융성'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국가의 도서관정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호 (전)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브라이언 애슐리 영국예술위원회의 도서관부문 디렉터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